

보고 또 보고...작품 하나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



8일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 대표작을 감상하고 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만나는 루오의 대표작 '미제레레.' 관람객들은 58점의 판화 작품을 한점 한점 천천히 감상하며 오랜 시간 머물렀다.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작품 하나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는 한 관람객은 다른 작품을 모두 감상한 후 돌아와 '다시' 작품을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개막한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휴 첫날인 8일 전시장은 초등학교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으로 북적였으며 전시관이 있는 광양은 물론 여수·해남 등 전남 지역과 광주 지역에서 방문한 이들이 많았다. 가족단위 관람객과 친구, 연인 등은 작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 10일까지 전시장을 관람한 관람객은 1500여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관람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주말에는 '광양숯배 구이 축제'도 열려 관람객들은 전시장 나들이 전후 먹을거리를 즐기기도 했다.

'조르주 루오' 전 첫 주말 풍경

초등생부터 80대 노인까지, 가족, 친구, 연인 등 발길 이어져 유화·판화·드로잉·스테인드글라스·타피스트리 작품 200여점 도슨트 해설 인기... "지역서 세계적 대가 작품 볼수 있어 감동"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200여점의 유화·판화·드로잉·스테인드글라스·타피스트리 작품을 만나는 이번 전시는 오직 전남도립미술관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이다.

관람객들은 '조르주 루오의 회상록', '여인들 그리고 정물과 풍경' 등 모두 5개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을 차분히 둘러보며 작품을 감상했다. 또 루오의 일생과 대표 작품을 담은 20여분 분량의 영상물을 감상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밖에 이종섭·구본웅·김재형 등 루오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만나는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

미술·시선 공명' 전도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시선을 선사했다.

하루 세차례 열리는 도슨트 설명회(오전 11시, 오후 1시30분·3시)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열기도 높았다. 도슨트 해설에는 시작 30분 전부터 30여 명이 몰려 전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해설 내내 손을 꼭 잡고 관람에 임한 초로(初老)의 부부와 어린 아이와 함께 온 가족, 20대 연인 등 참여자가 다양했다.

관람객들은 도슨트가 강조한 루오 만의 두터운 질감과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를 오롯이 느끼기 위해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관람하는 열성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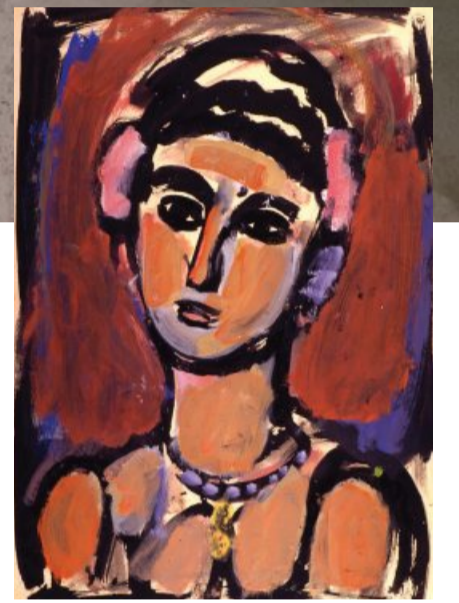
다. 40여 분간 해설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전시 도입으로 돌아가 다시 관람을 시작하며 작품을 곱씹었다.

12일부터는 단체 관람객의 관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비교고등학교, 광양제철초, 순천인안초, 고흥과역초 등 전남 지역 각 학교와 독서모임 등 성인들의 단체관람 예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현재 단체 예약 인원은 1400여명이다.

여수에서 전시장을 방문한 박수현씨는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을 볼 수 있어 참 좋았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냈던 루오의 작품 세계를 잘 알 수 있는 '두 형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지인들과 다시 전시장을 찾은 이승미 신안 저녁미술노을관 관장은 "오늘 두번째 볼 때가 더 감동스럽고 의미있다. 모든 문화가 서울 집중인데 도립미술관에서 이런 전시를 볼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특히 루오의 영향을 받은 한국 작가들도 함께 소개하는 섹션은 공립미술관이 해야 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여수에서 활동하는 박지호 작가는 "이번 전시는



'루드밀라'

많은 예술가에게 영향을 끼친 루오의 표현주의와 아이덴티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며 "서울에서 활동하는작가들이 이 전시를 보기 위해 광양 방문 일정을 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지역도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르주 루오전은 내년 1월 29일까지 열리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은 밤 9시까지 연장운영한다. 티켓 가격 일반 1만5000원(단체 1만2000원), 초중고생 9000원(단체 6000원). 전남도민-롯데카드 20% 할인.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플루티스트·사진작가 남매가 전하는 '힐링 무대'

플루티스트 이현경, 동생 이정록 사진작가와 콜라보 수익금 우크라이나 난민에 기부... 13일 금호아트홀

플루티스트 이현경(에필드 플루트 앙상블 단장)씨는 오는 13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열리는 독주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곡을 접했다. 모차르트 '플루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4중주' 등과 함께 레퍼토리로 정한 낯선 작곡가 비프링크의 '시즌스(Seasons)'다. 사계절의 이미지를 담은 곡을 연습하며 그는 작품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문득 자신이 위로를 받았던 동생의 사진을 배경으로 연주회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생인 사진작가 이정록과의 첫 콜라보 작업이 시작됐다.

비프링크의 음악이 흐르는 현경씨의 연습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벽에 걸린 이 작가의 대표 사진 시리즈 '루카'와 잘 어울리는 음악은 현대음악이지만 편하게 다가왔고, 치유받는 느낌도 들었다. 현경씨는 지난해 결성한 그룹 이름을 '루카 앙상블'로 지었다. 두 살 터울의 남매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작업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

'시즌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악장으로 구성돼 있고, 각각의 악장이 연주될 때 이정록 작가의 사진이 영상으로 보여진다.

"제안을 받고 음악을 수차례 들으며 아이슬란드 등 해외와 제주도 등 국내 여러곳의 사진들을 떠올렸어요. 음악이 명상적이고, 어떤 부분은 영성적이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4차례 다녀왔던 산티아고 순례길과 어떤 맑은 감성들 떠올라 봄·여름·가을은 순례길 사진에서, 겨울은 루카 시리즈에서 골랐습니다."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 영상예술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한 이 작가는 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여는 등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

축하고 있다. 올해 벨기에와 인도 전시를 열었고 새로운 '루카' 시리즈 작업을 진행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는 '음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제가 시각예술을 하는데 전 언제나 청각적인 작업인 음악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 시각보다는 청각이 즉각적이고 강력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어떤 심상을 떠올릴 때 음악에 많이 의존하고, 작업에서도 청각의 시각화를 염두에 두곤합니다. 어떤 음악이 한 세상을 열어줄 때, 그 음악이 새로운 만남을 이끌어내고, 그 만남으로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그게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음악을 듣는 유통기한이 있어 그 음악은 늘 바뀌지만 자신에게 새 세상을 열어준 음악으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들었던 베토벤의 '장엄미사', 루카 작업 당시 함께 했던 슈베르트의 '밤과 꿈'을 들었다.

전남대와 프랑스 에콜노르말 음악원을 수석졸업하고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15년간 활동했던 현경씨는 지난 2015년 안정된 자리를 뒤로하고 과감히 퇴직했다. 3년전 부터는 사회적 기업(주)에필드 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그에게는 모든 게 새로움이고 모험이었다.

"시향을 나오고 나서,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전에 아카데미한 연주회를 해왔다면 퇴직 후에는 일반인들에게 좋은 음악을 어떻게 전해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죠. 생각해 보니 시향이 있으며 많은 응원을 받았고 사랑받았더군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클래식이 쉽게 다가갈 수



13일 금호아트홀에서 콜라보 작업을 진행하는 사진작가 이정록(사진 왼쪽)과 플루티스트 이현경.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합니다."

포레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등을 들려주는 이번 연주회는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현일이 반주를 맡았으며 루카 앙상블(조민희·황은홍·조수영·김성복)도 함께 무대 오른다. 또 연주회 수익금은 광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기부한다.

"처음에는 콜라보에서 연주회를 열고, 가요 '아모르 파티'를 들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당황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각을 바꾸니 좀 더 자유롭게 음악에 다가갈 수 있었어요.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내가 흡수하고 내 안에 있는 정통 클래식 의 빛깔로 다시 연주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타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것, 내가 받은 것을 더 많은 이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요즘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상대의 예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작가 이정록, 인간 이정록의 삶은 참 감동스럽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싶어하는데 작품을 통해 완성해내더군요. 동생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사실 클래식은 규범화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어떤 틀을 깰 수 있었던 것도 동생의 작업을 늘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몇년전 여수에서 비엔날레 작품을 준비하다 힘든 몸을 이끌고 누나 연주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피곤함에 절어 짜증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 누나의 연주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음악으로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악을 듣고 난 후 좋은 이미지가 내 영혼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에서 가장 좋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 관객들도 음악을 통해 마음 속의 좋은 것들을 꺼내시면 좋겠어요."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 '일본연구 포럼' 12일, 김훈 초청 강연

'스타일리스트', '문체의미학' 작가 김훈(사진)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소장 김정례, 일본학과 교수)는 오는 12일 오후 4시 김남주 기념관에서 '제22회 일본연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나의 삶과 글쓰기'이며 작가 김훈이 삶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1994년 첫 장편 '빛살무니토끼의 추억'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훈은 2001년 장편 '칼의 노래'로 한국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순신 장군의 영웅과 인간의 모습을 구현한 '칼의 노래'는 그 해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특히 최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순간과 청년 안중근의 뜨거웠던 삶을 조명하는 장편 '하얼빈'은 주요 서점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창립한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는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한일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한일의 역사 갈등과 관계개선 등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